제 13 장 아나키스트 양주의 철학

1. 최초의 아나키스트, 양주(楊朱)

1) 삶을 긍정하면 국가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진다.

◇ 지금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어 위태로운 성에 들어가지 않고 군대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의롭게 여겨서 천하의 큰 이익 때문에 정강이에 난 털 하나라도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데도 세상의 군주들은 그를 따르고 예우하며 그의 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의 행동을 높이면서 외물을 가볍게 여기고 삶을 중시하는 선비라고 생각한다. 대저 윗사람이 좋은 땅과 커다란 집을 진열하고 작록을 베푸는 것은 백성들의 목숨과 바꾸기 위해서이다. 지금 윗사람이 '외물을 가볍게 여기고 삶을 중시하는(輕物重生)' 선비를 존중하면서도, 민중이 목숨을 던지면서 윗사람의 일을 위해 죽는 것을 중하게 여기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今有人於此, 義不入危城, 不處軍旅, 不以天下大利易其脛一毛, 世主必從而禮之, 貴其智而高其行, 以爲輕物重生之士也. 夫上所以陳良田大宅, 設爵祿, 所以易民死命也. 今上尊貴輕物重生之士, 而索民之出死而重殉上事, 不可得也.『한비자(韓非子)』「현학(顯學)」)

→ 맹자는 양주(楊朱, BC440?~BC 360?)를 '위아(爲我)', 즉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주의자로 몰고 가고 있지만, 이것은 단지 맹자의 편견일 뿐이다. 한비자에 따르면 양주의 사상은 단순한 이기주의가 아니라 일종의 아나키즘을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일체의 외적인 이익을 경시하게 되면, 잔혹한 국가주의는 저절로 소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모든 사람들이 천하를 이롭게 하려는 이념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천하에는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 백성자고(伯成子高)는 한 개의 터럭으로써도 남을 이롭게 하지 않았고, 나라를 버리고 숨어서 밭을 갈았다. 우(禹)임금은 한 몸을 가지고 스스로를 이롭게 하지 않았고 그의 몸을 지치고 깡마르도록 만들었다. 옛날 사람들은 한 개의 터럭을 뽑음으로써 천하가 이롭게 된다고 하여도 뽑아 주지 않았고, 천하를 다 들어 자기 한 사람에게 바친다 하더라도 받지 않았다. 사람마다 한 개의 터럭도 뽑지 않고, 사람마다 천하를 이롭게도 하지 않는다면 천하는 다스려질 것이다.
(伯成子高不以一毫利物, 舍國而隱耕. 大禹不以一身自利, 一體偏枯. 古之人, 損一毫利天下, 不與也, 悉天下奉一身, 不取也. 人人有損一毫, 人人不利天下, 天下治矣.『열자(列子)』「양주(楊朱)」)

→ 양주는 공동체를 우선으로 하는 이념이나 사유는 개인의 삶을 하나의 수단으로 폄하한다고 통찰했다. 어떤 이념에 매혹되어 인간들이 공동체를 구성할 때, 그들은 결국 공동체를 위해서 삶을 버리고 심지어 이념을 공유하지 않는 타자들의 삶을 억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양주가 공동체, 이념 등을 인간 삶의 목적이 아니라, 단지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통찰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